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 [고시 제2015-226호]에 대해 정책입안의 배경과 함께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고시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대상질병(52개 경증질환)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는 경우, 약구입시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상향함으로써 환자의 대형병원 쓸림을 방지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입니다.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내용>

대상질병	구분	약국 본인부담률
52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현행)→50%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현행)→40%

2. 도입 배경과 의원 역점질환 선정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쓸림을 방지할 목적으로 52개 질환을 선정하여 의원역점 질환(경증질환)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2005~2009년도 의원 외래 다빈도 질환 상병과 미국, 호주의 상병 리스트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상병으로 52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지천식(J45.0~45.9)이 조절정도에 무관하게 경증으로 분류되어 버려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 정책도입에 따른 효과

- 2011년 심평원 자료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천식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82.6%), 대형병원을 이용한 환자비율은 11.1% (상급 4.1%, 종합 7.0%)로 오히려, 천식환자 의 대형병원 쓸림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었습니다.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천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수한 형태의 천식이거나 또는 유발시험이 필요하거나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질환의 악화와 이에 따르는 의료자원의 추가 지출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책 도입후 약 9-10% 의 천식 환자가 의원으로 돌려졌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처방은 제자리였고 대신 경구용 스테로이드 처방이 늘었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는 다시 대형병원을 방문하였고, 대부분 경증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질병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보건통계를 왜곡하여, 마치 통계상 천식환자가 줄어든 것 같은 착사현상을 보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환자의 천식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기회 박탈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천식관리가 되지 않아, 정책 시행 이후 환자 1명당 지출되는 비용(입원비용과 입원일수)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4. 학회의 개선노력

-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회공청회와 언론 간담회를 통해 천식을 획일적으로 경증질환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고시 시행 이후에도 성급한 정책도입에 따라 불거진 역효과와 천식환자의 불편/부담 증가에 대해 관련 기관과 언론에 호소하였고 천식관련 경증질환 분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개정 작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천식 표현형 신설과 함께 천식 증증도 부분에서는 경/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고시설명

천식(J45.0~45.9)은 의원역점질환(경증질환)에 둑여 있어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증가된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표에서 경증으로 표시된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천식 관련 상병은 경증질환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식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진료 후 약품 구입시 추가로 부담하던 본인부담 증가분이 3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시 이후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내용>

대상질병	구분	약국 본인부담률
5개 경증천식 제외 나머지 천식상병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50(현행)→ 30%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40(현행)→ 30%

<표. KCD-7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천식>

J45.0	주로 앨러지성 천식 앨러지기관지염NOS 천식을동반한앨러지비염 아토피성천식 외인성앨러지천식 천식을동반한건초열	
J45.00	기침(이)형 천식	
J45.01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경증)
J45.02	기타 앨러지천식, 중등도 지속성	
J45.03	기타 앨러지천식, 중증 지속성	
J45.09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	(경증)
J45.1	비앨러지천식 특이체질천식 내인성비앨러지천식	
J45.10	운동유발성 천식, 기관지연축	
J45.11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경증)
J45.12	기타 비앨러지천식, 중등도 지속성	
J45.13	기타 비앨러지천식, 중증 지속성	
J45.19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	(경증)
J45.8	혼합형 천식 J45.0및J45.1에기입된병태의합병	
J45.80	직업성 천식	
J45.81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J45.88	기타 혼합형 천식	(경증)